

월간 글로벌 철강이슈 (20년 7월)

한국철강협회 조사분석실 (bonghee.jang@ekosa.or.kr, 02-559-3558)

< Executive Summary >

◆ 중국 상반기 철강수출입

- 상반기 강재 수출은 28.7백만톤으로 전년비 16.5% 감소. 반면, 수입은 7.3백만톤으로 전년비 26.2% 증가
- (수출) 코로나19 봉쇄조치 및 물류차질로 1~2월 수출이 대폭 감소했으나 경제 정상화와 더불어 3~4월 수출은 전년 수준으로 회복. 5~6월은 수출 상대국 수요 급감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
- (수입) 경제 정상화 이후 중국 내 철강수요가 증가하고, 코로나19로 주요 수출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국이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
- 내수 회복은 조강생산 확대를 위한 철광석과 반제품 수입의 동인으로도 작용. 1~5월 중국의 반제품 수입은 전년비 8배 이상 증가

◆ 일본 3분기 철강 수급전망

- 일본 경제산업성(METI)은 경기 위축 영향으로 3분기 철강재 수요가 17.3백만톤으로 전년동기비 24.3% 감소, 내수 11.9백만톤으로 22.1% 감소, 수출은 5.3백만톤으로 28.6% 감소할 것으로 전망
- 수요감소 영향으로 3분기 조강수요는 27.9% 감소한 17.7백만톤에 그칠 전망
- 정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토목분야의 철강수요는 소폭 증가하겠으나 주택 수요 감소로 건축용 철강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. 자동차 생산이 소폭 회복 되겠으나 그 외 분야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
◆ 상반기 글로벌 조강생산 전년비 6.0% 감소

-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교적 빠르게 회복한 중국의 상반기 조강생산은 499백만톤으로 전년비 1.4% 증가한 반면, 그 외 지역의 상반기 조강생산은 374.1백만톤으로 14.3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전세계 조강생산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3%에서 올해 57%로 확대